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하나님의 학교에서

### (시편 119:33-40)

## In God's school

### (Psalm 119:33-40)

기독교와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문명이 퇴치되고, 신학문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Christianity is closely related to education. Whenever we look a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we find in every place whe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was transmitted that schools were established, societies became civilized, and new studies were introduced.

This psalm teaches u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faith. Once we learn God's word, we naturally seek to act and obey Him in His word. The psalmist asks God to be his teacher, so that he can truly learn His word.

본문은 배움과 신앙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르게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1. 하나님 말씀 대학에 입학 하자

33-34절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가졌거나 가진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 대학의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니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니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에 대해 무지합니다.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구속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하나님 말씀 대학에서 진보를 나타내라

하나님 백성은 말씀대학에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아 지식과 인격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학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므로 4가지 부분, 곧 마음, 발, 소원, 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①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소서 - 믿음을 갖게 하소서
- ② 내 발을 다스려 주소서 - 행함이 있게 하소서
- ③ 마음의 소원을 다스려 주소서
- ④ 내 눈을 하나님의 도에 고정시켜 주소서 -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3. 하나님 말씀 대학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라

시험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8절). 하나님의 약속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한 자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이에게 영생의 약속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이에게는 죽음과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학교에 입학하여 끝까지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학에서 신실하게 배워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고 균형 잡힌 인격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Shall we enter the University of God's word?

Verses 33-34 define the reason why we should enter the University of God's word. These verses tell us that the psalmist knocks at the door of the University of God's word in order to live a holy life, not because he wants to gain something more or develop what he already has. Rather, he prays that God will instruct him in following His will. This means that, in order to keep His law, he asks for understanding in His law. We lack the ability to teach His word. We also lack the power to live according to His word. Therefore, we must enter the University of God's word, study what He teaches, and preserve the redeemed life under Him.

2. Demonstrate your advancement in the University of God's word!

God's people should receive a balanced education in the University of God's word and improve their knowledge and character. This University teaches us to keep His word in four areas: our heart, feet, desires, and eyes should be directed by God.

- (1) May God control my heart! ? May God keep my faith!
- (2) May God direct my feet! ? May God fulfill your word!
- (3) May God rule the desire of my heart!
- (4) May God fix my eyes on the truth! ? May God direct me to run toward the right goal!

3. your life by being relieved and encouraged in the University of God's word!

When the psalmist was confronted with trials and danger, he only knows that he needs God's help. "Fulfill your promise to your servant, so that you may be feared" (v. 38). God's promise is His word. His word becomes a promise of life to those who confess their sins, eternal life to those who follow the path of His commands, and death and judgment to those who refuse His gospel.

My beloved congregation!

Christians must be patient in all situations. If we are really faithful Christians, then we will enter the University of God's word, and learn with all our heart to the very end. By learning faithfully in the University of God's word, showing our advancement, and attaining a balanced character,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testify to the gospe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9기 단기선교단 파송

## '캄보디아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9기 단기선교단이 오늘 캄보디아로 파송된다. 제9기 단기선교단은 총 29명으로 '캄보디아 군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이란 주제 하에 공산 크메르 루주 정권의 학살과 확정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캄보디아에 주님의 사랑을 전 파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모든 순서 순서를 준비하여 왔다.

단기선교단은 8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우리교회 가 캄보디아로 파송한 이재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마 하나임' 선교센터 '를 거점으로 5개의 군부대를 방문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료선교, 어린이사역(성경학교), 이미용 봉사, 방역 등의 다양하고도 알차게 준비된 선교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제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교회 단기선교단이 뿌리는 작은 신앙의 씨앗 하나가 옥토에 뿌려져 열매를 거 두도록 그리고 단기선교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

제9기 단기선교단 단원은 다음과 같다.

- 지도: 노현상 목사
- 단장: 권혁우 집사
- 단원: 송미령 오신옥 이자혁 전용순 손혜숙 김영주3 김미은 한성현 염규빈 한민아 차신영 손형호 이민주 김성은 오경미 김병석 김미은 이갑진 박우주
- 의료봉사: 하인선 노제현 안인호 이지동 민효영 박경정 하영인 정현구 박선영 이선우 이주영

### 디아스포라부 여름 수련회

디아스포라부(부장 이동권 집사) 여름 수련회가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자'를 주제로 8월7일(금)부터 8일(토)까지 2일간 서울교회와 강원도 알프스 글로벌 펜션에서 열린다.

디아스포라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부서로 지난 주간에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5일간 개최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디아스포라부원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

### - 공동 기도제목 -

### - 제9기 단기선교팀원 -

1.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단기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우상의 나라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3. 단기선교팀원들에게 성령충만함과 선교의 비전,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4. 단기선교팀원들이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단기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5. 의료선교팀에게 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병자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6.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7. 준비하는 선교프로그램들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8. 필요한 선교물품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9.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어 캄보디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1:8)

## 『칼빈길 명예도로』 부여 위해 기도하는 이들 늘어

### - 서울 강남 예비역 기독교인 연합회 강남구청장 방문 -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해 9월6일 제3차 준비위원회 회의 결의로 칼빈 명예도로를 강남구에 신청하였다.

그날 이후 우리교회 앞을 가로지르는 폭 8m의 '삼성로 서73길'을 명예도로로 부여받기 위하여 구청의 요청에 의해 주민 82%의 동의서를 받았고 우리교회는 쉬임없이 기도해왔다.

관계 법률이 2009년 4월 1일 제정되었고 7월 2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8월중 강남구 새주소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취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28일 서울강남O.C.U 여호수아회(회장 노인옥 장로) 회원 15명이 맹정주 강남구청장을 방문하

고 칼빈길 명예도로 부여를 촉구했다.

이날 김영관 장로(해군 대장), 김진영 장로(육군 대장), 강덕동 장로(육군 중장) 등 원로들과 이정린(육군 소장) 육사동창회장, 하종근 장로(해군 소장) 해사동창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이들이 참여했다.

이들 강남O.C.U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 우리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군선교와 국가를 위한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종윤 목사를 지도목사로 모시고 있다.

한편 칼빈길 명예도로 부여를 위해 공성진 위원(14교구,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원진 강남구의회 부의장, 박남순 대치동 구의원도 함께 기도할 것도 약속했다.

### 당회원 가족수련회

8월15일(토)

아가페타운에서

우리교회 당회원 가족 수련회가 8월15일(토) 아가페타운에서 1일 수련회로 열린다.

강사는 이종윤, 박도철 목사가 담당한다.

디아스포라부 -영어캠프

# 그 날이 올 때까지

이중권 집사  
(디아스포라부 부장)

디아스포라(Diaspora)는 성경의 백성 이스라엘의 별명이며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로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씨 뿌림(Spora, spem)'의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국내 탈북자 수는 금년 6월 말 현재 약 1만 7천여 명으로써 자유를 찾아 이산의 아픔을 스스로 감수한 탈북 청소년들과 장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심이며 이들을 말씀과 섬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돌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생활문화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2007년도 조사에 따르면 탈북출신 학생 10명 중 3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데 이유는 주로 영어 문제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영어캠프'를 열었습니다. 소요경비 마련을 위하여 7월18일 '탈북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별도로 개최하였으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영어캠프는 모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8월 7일



부터 1박2일 동안 열리는 여름수련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앞으로 복음화 된 통일조국의 주역들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들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그 빛 가운데에 그들이 살게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이 디아스포라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크나큰 비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여주시는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신 장로(12교구)

하나님께서 멍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너무 느긋했고 방만했습니다. 긴 인생인데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지 생각하며 긴장감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이고 멍들도 천천히 갖고 계시니 대충 살고 적당히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덧 내 인생이 황혼에 와있습니다. 종점에 도달했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서있습니다. 하나님의 멍들이 마지막 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고 애원해도 소용없는 시간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떨어진 횡편과 같습니다. 길은 안보이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방법이 전무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더 갈 길이 없는 벽 앞에서 나는 참회의 기도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 쪽 편에 섰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청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달려있는 고백과 간구를 이제 올립니다. 부귀영화가 끝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찾는 이 조차 없게 된 이 순간에 죽음 밖에 찾아올 것 없는 이 날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살아온 과거를 참회하며 천천히 멍들을 가시는 하나님께 이제야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2009년 성경암송 대회

『범위 : 로마서 1장-5장』

10월18일(주) - 교회학교별 예선

10월23일(금) - 본선

2009년 성경암송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의 범위는 로마서 1장-5장까지이며 10월18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여기서 선발된 이들이 10월23일(금)에 열리는 본

선에 참여하여 선의 경쟁을 하게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말씀을 암송하며 본인도 은혜받고 교회도 영광이 되는 2009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참여 바란다.

### 교회학교에 출석을

연령에 맞는 교회학교로

우리 서울교회는 천국시민 양성과 교회학교 10,000명 출석을 위해 주일 예배 후 또는 예배 전에 교회학교로 모이고 있다.

성도들은 본인의 연령에 맞는 교회학교에 모두 참석하여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주보 6면의 교회학교 안내를 참고하여 성경공부를 꼭 하시기 바란다.

### 태신자 품기 운동에 나도 참여를

태신자카드 사무국으로 제출

우리교회는 '태신자 품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도들은 우리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태신자로 걱정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전도하기 바란다.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 편지도 보내드린다.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예수님의 섬김

최희연 (중등부)



7월 27일 (월)부터 29일 (수)까지 2박 3일 동안 중등부는 북한산 기화 수련원으로 여름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란 주제의 이번 수련회는 기대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훈련, 이종윤 목사님과 한상은 목사님의 전체 특강이 있었고 다섯 개의 선택 강좌 중 2강좌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저녁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부흥집회 때 박종민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비우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그 비워진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과 순종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전체 특강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종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내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저의 꿈과 비전에 연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으로 바꾸고 남을 섬기기 위해 성공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내가 미래에 성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상은 목사님께서 뜻과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는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이런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 고민해 왔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주일 3부 예배 및 교회 행사에 관현악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멘 관현악단의 연주로 드러진다. 오늘 저녁에는 ‘God of our Fathers(George W. Warren)’ 외에 2곡을 연주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녁부흥집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여기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나를 위해 섬기셨던 그 마음과 감사함으로 인해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왔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같은 중등부 안에서도 몰랐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소에도 친했던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월 7일(금) 갈빈탄생 500주년 기념대회 평가를 갖는다.

■ 이영조 집사(음악감독)는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7개국 작곡가 대회에 주제 작곡가로 참석차 출국(7월 30일)

■ 영전: (3교구) 남태운 집사 (이동귀집사 남편)한양대 부총장 선임

■ 수상: 박세영성도(임마누엘찬양대) 제41회 난파전국음악콩쿨 성악 대학·일반부 3위

(13교구) 김지수 어린이(김병호집사 김현주 집사 장녀): 제 19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어린이 대회 글짓기 초등부 동상

■ 이사: (15교구) 오준기 집사(허화영 집사) 가정 미도@ 108-301호

■ 교역자 휴가: 8월 3일~8월 8일: 정수길 목사 / 대행 박종민 목사  
황광 목사 / 대행 장성남 목사  
8월 3일~8월 6일: 문정훈 목사 / 대행 한상은 목사

■ 주간식당봉사: 에스더전도회(8월 2일) 한나전도회(8월 9일)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 비전을 마음속에...

김진환 집사 (고등부 부장)

저희 고등부는 수령 8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묵도하는 것으로 2박3일간의 여름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학업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쳐있는 고등부 학생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청정 자연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침에는 QT와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저녁 집회에서 뜨거운 찬양과 함께 정수길 지도목사님과 황광 목사님의 말씀과 인도로 각 학년별 통성 기도회와 개인별 기도 제목을 놓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는 도고기도회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과 비전을 마음속에 새긴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종윤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

기신 주님의 섬김에 대한 도리를 배웠고, 교통 체증으로 3시간 30분을 손수 운전하고 오셔서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고등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김광신, 박두영, 정병무 세분의 장로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생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도 소중한 시기를 맞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이 장차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3.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4. 갈빈길 명예도로 시행되도록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